

멕시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에 관한 담론의 재고*

박 병 규
서울대학교

박병규(2018), 「멕시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에 관한 담론의 재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2), 29-54.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관점에서 신사파티스타 투쟁에 관한 세 가지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사이버전쟁이라는 담론은 신사파티스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 담론은 치아파스라는 현실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신사파티스타 투쟁을 가상공간의 투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역기능이 있다. 둘째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담론이다. 한때 신사파티스타는 반신자유주의 진영과 연대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로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세계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신사파티스타 투쟁의 근본 목표는 반신자유주의가 아니라 토지 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전부터 존재하던 고질적인 문제이며, 신자유주의가 퇴조한 지금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셋째는 대안근대성이라는 담론이다. 그렇지만 신사파티스타의 자치는 원주민 공동체 전래의 습속규범의 제도화일 뿐, 대안근대성의 모색이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습속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현 체제에 대한 대안근대성의 모색과 거리가 있다.

핵심어 신사파티스타,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사이버전쟁, 반신자유주의, 자치, 습속규범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서론

멕시코 치아파스 지방에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하 ‘신사파티스타’라고 칭함)¹⁾이 1994년 1월 1월 봉기했을 때, 멕시코 국내의 반응은 양면적이었다. 먼저,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중미와 남미의 게릴라단체가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장 투쟁과 국가 전복을 주장하는 신사파티스타의 봉기는 시대착오적인 해프닝으로 보였다. 이런 반응을 누구보다 먼저 간취한, 멕시코의 우파 지식인 옥타비오 파스는 신사파티스타의 “이념적 기원은 모택동 사상, 해방신학, 센데로 루미노소, 중미 혁명운동, 다시 말해서 이미 파산한 20세기 이념의 잔해물”이라고 비판했다(Paz 1994).²⁾ 이와 반대로, 신사파티스타의 봉기는 멕시코 사회가 지금까지 외면하던 원주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념의 틀로 성급하게 재단할 일이 아니라 경청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멕시코의 진보 지식인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신사파티스타의 봉기가 “멕시코 남부 지역의 상대적인 빈곤과 불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Fuentes 1994a) “공산주의 진영 붕괴 이후 최초로 발생한 혁명(primerá revolución poscomunista)”이라고 평가했다(Fuentes 1994b).

이제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사파티스타는 봉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략을 수정했다. 초기의 무장 투쟁과 국가 전복 기획을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담론 투쟁으로 선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사파티스타는 멕시코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 및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국제 저항 운동에 전략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멕시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 1) 일반적으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을 축약하여 사파티스타(zapatista)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파티스타라는 말은 20세기 초부터 1910년 멕시코혁명을 주도한 에밀리오 사파타(Emilio Zapata)를 지칭하는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파타스타민족해방군을 가리킬 때는 신사파티스타(neozapatista)라는 말을 사용한다.
- 2) 옥타비오 파스의 이 글은 1994년 당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추후 밝혀졌듯이,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은 1983년부터 라칸돈밀림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릴라단체였다(Muñoz Ramírez 2003, 27).

2001년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제도권 정당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신사파티스타를 비롯한 멕시코 원주민 일반의 자치를 보장한 ‘산 안드레스 협정’의 법제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도권 정당을 불신하게 된 신사파티스타는 2006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정권 교체가 무의미하다고 천명하고, 당선이 유력시되던 야당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정권 교체는 실패로 돌아갔다. 유력 야당 후보를 비판한 신사파티스타는 멕시코 민주주의를 외면한 세력으로 치부되어, 국내 지지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더불어 신사파티스타를 지원하던 국제 연대도 점차 동력을 상실했다. 2005년 신사파티스타는 제6차 라칸돈밀림선언에서 반자본주의를 기치를 들었지만 이미 등을 돌린 멕시코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었다.

2017년 5월 27일 멕시코의 원주민국회(Congreso Nacional Indígena)는 신사파티스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8년 대통령선거에 원주민국회의 대변인 마리아 데 헤수스 파트리시오 마르티네스(María de Jesús Patricio Martínez)를 무소속으로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언론의 관심도 저조하고, 멕시코 국민 여론도 냉랭하다.³⁾ 예전의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의 물결은 사라지고 비판과 냉소라는 포말만 남은 현재의 상황은 신사파티스타의 존재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로 보인다.

신사파티스타가 봉기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신사파티스타에 관한 갖가지 해석, 견해, 논평, 담론의 홍수 속에서 신사파티스타의 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는 희소했다. 바꿔 말해서,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봉기 이유와 투쟁 목표에 관심을

3) 멕시코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는 2018년 2월 8일까지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866,593명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마리아 데 헤수스 파트리시오 마르티네스는 281,955명의 서명을 받아 결국 후보 등록조차 불가능했다.

4)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원주민은 종족, 정치 성향(보수, 진보), 종교(가톨릭, 개신교)에서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신사파티스타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반신사파티스타 원주민도 있고, 중립적인 원주민도 있다. 그러므로 원주민 가운데서 신사파티스타에 참여한 원주민을 가리킬 때는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이라고 지칭한다.

기울기보다는 외부인이 만들어낸 사이버전쟁, 반신자유주의 투쟁, 대안근대성의 추구하고 같은 담론으로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을 해석하고 논평하고 지지하려는 경향이 우세했다. 이런 외부인의 담론이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은 어제 나은 내일을 위해 봉기하고 투쟁한 것이지, 사이버전쟁, 반신자유주의, 대안근대성을 위해 봉기하고 투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신사파티스타와 관련한 사이버전쟁, 반신자유주의, 대안근대성 담론은 멕시코 치아파스라는 변방에서 봉기했기에 자칫 망각하거나 무시하기 쉬운 신사파티스타 투쟁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또 지지 세력을 형성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한다. 필자도 이런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계적인 연대 표명과 지지 표명은,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던 멕시코의 국내 여론과 더불어, 무력 진압을 추구하던 멕시코 정부에게 압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론은 신사파티스타 원주민 봉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토지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열악한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외부인이 자신의 상황과 주장을(신사파티스타의 상황과 주장이 아니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을 전유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메타비평의 관점에서 이들 담론을 살펴보고려 한다.

II. 사이버전쟁과 치아파스 현실

신사파티스타의 봉기와 투쟁을 ‘사이버전쟁’, ‘넷전쟁’이라고 처음 명명한 사람은 해리 클레버(Harry Cleaver)였다. 클레버는 신사파티스타가 봉기한 지 1년 후인 1995년에 발표한 글「사파티스타와 투쟁의 전자적 직조 The Zapatistas and the Electronic Fabric of Struggle」에서 신사파티스타는 이전에 게릴라 투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이버공간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파티스타가 붕기 초기에는 실패했지만 [...] 사파티스타와 지지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고 유지해왔다. 이로써 말의 전쟁, 이미지의 전쟁, 상상력의 전쟁, 조직의 전쟁이 되었고, 사파티스타는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Cleaver 1995)

클레버는 1994년 당시 치아파스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를 언급하면서, “마르코스 부사령관이 정글 캠프에 앉아서 휴대전화 모뎀을 이용하여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 발표문을 인터넷에 직접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신사파티스타 관련 정보의 전자적 유통은 “새로운 형태의 투쟁 방식”이라고 역설했다(Cleaver 1995). 이런 클레버의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대중적으로 보급된 인터넷과 신사파티스타 관련 웹사이트(www.ezlnaldf.org, www.ezln.org 등)를 통해서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되었다.

클레버의 사이버전쟁이라는 용어는 당시 막 등장한 정보통신기술의 파급효과를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여 신사파티스타 담론 확산 방식의 미래를 선취한 것으로, 신사파티스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파티스타 투쟁을 사이버전쟁으로 명명한 것은 신사파티스타가 인터넷이라는 최신택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21세기 게릴라’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지금도 인터넷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직관적으로 웹브라우저가 구동하고 있는 화면을 떠올리는데, 이처럼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화면에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때는 1993년이였다. 바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의 대학생이던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과 에릭 비나(Eric Bina)가 공동 개발한 모자이크(MOSAIC)이다. 그보다 1년 후인 1994년 12월에는 한때 웹브라우저의 강자로 군림하던 넷스케이프(Netscape)가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이듬해인 1995년 8월에는 익스플로러(Explorer)가 시장에 선을 보였다. 그런데 신사파티스타가 붕기한 때가 1994년 1월 1일이므로 클레버가 언급한 사이버전쟁이나 넷전쟁은 현재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인터

〈표 1〉 멕시코 인터넷 사용자(단위: 천대)

연도 사용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가 정	4	10	29	147	297	478	2,569	3,228
기업, 정부, 교육기관	35	84	158	449	925	1,344	2,489	3,869
합 계	39	94	187	596	1,222	1,822	5,058	7,097

* Santiago(2014) 의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넷과는 다른 사이버세계였다. 웹브라우저의 세계가 아니라 고퍼(Gopher)나 FTP와 같은 특정 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는 pc통신의 세계였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고퍼든 웹브라우저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경을 넘나든다면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1994년 1월 현재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220만대로 추산한다(Bradner 1994). 이 가운데 대부분의 컴퓨터는 미국과 유럽에 있었다. 멕시코의 경우는 1994년에 국가 기간망을 설치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연방전기통신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멕시코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약 3만 9천대였다<표 1>. 이 가운데는 정부기관, 기업체, 교육기관이 3만 5천대를 차지하고, 일반 가정은 4천대이다. 이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수가 매년 증가하기는 하지만 2000년에 이르러서야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990년대 중반 멕시코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도 멕시코시티와 같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었다. 신사파티스타가 봉기한 치아파스의 경우, 산 크리스토팔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는 매년 여름이면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들이 순례하는 관광지로 통신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만, 이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 시골로 들어가면 전기조차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유선전화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기와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컴퓨터가 없었다. 설령 전기와 전화와 컴퓨터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스페인어를 모르고 오로지 원주민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신사파티스타가 봉

기하던 시절의 치아파스 형편이었다. 신사파티스타가 봉기한 1994년은 멕시코는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터넷은 결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정보소통수단은 아니었다.

실제로 1994년 신사파티스타의 제1차라칸돈선언문을 포함하여 보도자료는 멕시코의 진보적인 언론인 일간지 ‘라호르나다(La Jornada)’와 주간지 ‘프로세스(Proceso)’ 등에 팩스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며,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했다. 아직까지는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가 여전히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러시아혁명 당시 레닌이나 트로츠키가 애용하던 편지 형식을 빌려서 신사파티스타 봉기의 정당성, 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외부에 전파했다. 따라서 신사파티스타가 봉기한 1994년이나 해리 클레버가 논문을 발표한 1995년까지도 멕시코에서 인터넷은 결코 보편적인 정보소통의 수단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클레버가 이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파티스타 투쟁을 가리켜 사이버전쟁, 넷전쟁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1994년에 신사파티스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치아파스엘(Chiapas-L)과 치아파스95(Chiapas95)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요즘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는 아니지만 웹페이지에 게시물을 열거하고 이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만든 사이트였다. 그 가운데 치아파스엘은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의 대학생단체 번(Burn!)이 신사파티스타 봉기와 관련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1994년 8월에 개설했고, 치아파스95는 텍사스대학교 오스틴(UT Austin)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던 클레버 자신이 멕시코 진보 언론에 보도된 신사파티스타 문헌과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업로드하기 위해 1994년 10월에 개설했다. 이보다 조금 앞선 1994년 봄에는 신사파티스타에 동조한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사이트(<http://www.ezln.org>)를 개설하기도 하였다(Schutz 2014, 179-184). 이처럼 1995년 당시 클레버가 언급한 사이버전쟁, 넷전쟁이란 멕시코 외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개설된 웹사이트

에서 소통되고 유통되던 신사파티스타 관련 정보의 흐름을 가리킨다. 웹사이트의 서버, 개설자, 게시물 작성자, 이용자는 멕시코인이 아니었고,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런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투쟁은 1994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결코 사이버전쟁, 넷전쟁이 아니었다. 클레버도 신사파티스타가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사파티스타의 봉기를 사이버전쟁이고 넷전쟁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미 봉기의 주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관점으로, 미국이라는 매개된 관점으로 신사파티스타 투쟁을 인식하게 된다. 멕시코의 오지에서 벌어진 사태를 서구의 시각으로 조망하는 서구중심주의의 한 형태인 것이다. 혹자는 클레버가 신사파티스타의 정보 확산을 통하여 국제적 지지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변호하기도 하는데, 당시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인 정보 소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폭발적인 이용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클레버가 아니었더라도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신사파티스타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결정적인 요소는 클레버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기술 문명이었다. 그리고 클레버 자신은 가상공간에서 사이버전쟁, 넷전쟁을 벌이고 있었겠지만, 멕시코의 신사파티스타는 실제 공간에서 생사가 갈리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결코 치아파스는 사이버공간이 아니며,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은 예나 지금이나 사이버전쟁도 아니고, 넷전쟁도 아니다.

III. 반(反)신자유주의 투쟁과 토지 문제

신사파티스타에 대한 견해 가운데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가장 지속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신사파티스타가 등장한 1990년대 초반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기에 1989년 현실사회주의 퇴조 이후 자본주의 대안 세계를 모색하던 전 세계의 진보 진영이 가세함으로써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에서 열린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

하다’는 구호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신사파티스타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상징으로 통용되었다.

신사파티스타 투쟁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1994년 1월 1일 신사파티스타는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던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가 집권기간(1988.12.01.-1994.11.30.) 내내 추진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봉기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근거는 1994년 1월 1일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인터뷰이다. 치아파스 지방 라디오방송국(La Voz del Cañón)의 마리오 갈린도(Mario Galindo)와 이네스 무뇨스(Inés Muñoz)가 마르코스에게 봉기한 이유를 묻자 북미자유무역협정(TLCAN)이 발효되는 날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무장봉기한 1월 1일에 발효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마르코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동지들이 이 날 봉기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동지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응하여 ‘생명선고’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려고 무장봉기한 것입니다.” (Galindo 1994)

마르코스가 언급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당시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이 추진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 협정은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 사회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있었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멕시코인의 주식인 옥수수가 미국에서 수입되면 멕시코 총경작지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8%가 종사하고 있는 옥수수 재배농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시점까지 멕시코 농민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였는데,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반대라는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봉기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신사파티스타 봉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통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를 악마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널리 유

〈표 2〉 멕시코 경제지표(1987~1995)(단위: %)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경제성장률	1.70	1.20	4.20	5.10	4.20	3.60	2.00	4.40	-6.20
실 업 륜	3.90	3.50	2.90	2.70	2.70	2.80	3.40	3.60	6.30
인플레이션율	128.89	125.43	20.32	26.54	22.84	15.58	9.77	6.97	34.77

* 'Indicadores Macroeconómicos 1980~2003'에 의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포된 까닭에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 하의 멕시코 사회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가 극심하게 드러난 시기로 오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기만 따진다면 1994년 신사파티스타가 봉기하기 전까지는 성공적이었다. 이내영이 지적하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을 배태했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멕시코는 1993년까지 비교적 모범적인 경제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왔다”(이내영 1998, 88). 사실 <표 2>에서 보듯이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재정의 균형을 달성했다. 또 실업률은 낮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호황과 더불어 사회도 안정되었으며, 삶의 질도 결코 악화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1994년 12월 외환위기를 초래한 고정환율제도, 공공부조의 축소로 인한 복지의 후퇴, 부패의 온상이 된 공공기업의 민영화,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업의 희생이 뒤따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멕시코의 일반인이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경제정책의 폐해를 절감한 때는 1994년 12월 외환위기 이후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적어도 1994년 1월 1일 이전에는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이 봉기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비록 마르코스는 앞서 인용한 1994년 1월 1일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사파티스타에게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위협을 감지한 때는 1992년 에히도(ejido)를 규정한 헌법 27조를 개정

했을 때다.⁵⁾ 1910년 멕시코혁명의 구호 ‘토지와 자유’를 헌법에 구현한 이 조항을 정비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토지 분배가 물리적 한계에 이르렀고, 북미자유 무역협정에 대비하여 멕시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된 헌법 27조 가운데 원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사항만 언급하면, 에히도 가운데 원주민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땅은 기존처럼 매매, 임대, 저당이 불가능하지만, 공동체 소속의 개인이 경작하는 땅은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원주민이 심각하게 여긴 문제는 매매 허용이 아니라 더 이상 무상 토지분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헌법 27조 개정으로 20세기 내내 지속된 정부의 무상 토지분배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멕시코 전역에는 약 65개 원주민종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헌법 27조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원주민은 신사파티스타에 참여한 6개 종족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원주민 종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은 어느 원주민보다 더 큰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그 이유는 치아파스주 원주민의 독특한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치아파스주는 멕시코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옥한 땅에서 풍부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곳 원주민은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가장 빈곤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말은 마치 외지인이 원주민 거주 지역의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원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케이라의 지적처럼 반쪽 진실이다. 천연자원은 치아파스주를 부유한 주로 만들고도 남을 만큼 풍부하다. 그런데 이런 천연자원은 모두 원주민 거주 지역 바깥에 있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 목축지는 물론이고 수력발전소와 천연가스 생산지도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이 거주하는 로스 알토스(Los Altos)나 라칸돈밀림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오로지 커피 생산량만이 치파아스주의 다른 지역보다 많을 뿐이다 (Viqueira 2000, 12-13).

이렇게 척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주민은 식민지 시대부터 1년이면 몇 달

5) 멕시코의 독특한 토지제도인 에히도의 성립부터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의 개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임상래(1996)를 참고하시오.

〈표 3〉 1970년에서 1990년까지 멕시코 원주민 인구 증가율(단위: 명)

지역 \ 연도	1970년	1990년	증가율
멕시코 전체 원주민	3,111,415	5,282,347	2.6%
치아파스주 원주민	287,836	717,012	4.6%
치아파스주민	1,569,053	3,210,486	3.6%

출처: INEGI(1993, 6)

을 멀리 떨어진 농장에 머물면서 낱품팔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그러나 1950년대 멕시코 정부가 목축업을 장려하면서부터 커피, 담배, 사탕수수, 옥수수를 재배하던 농장은 목장으로 바뀌었고, 농장에서 품을 팔던 원주민은 실직자가 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런 원주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칸돈밀림 개척을 허락했다. 밀림을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었으므로 원주민은 화전을 일구었다.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1-2년 농사를 짓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원주민의 화전 경작으로 밀림이 급속도로 파괴되자 멕시코 정부는 1978년에 라칸돈밀림의 보호를 위해 개간을 금지했다. 이로써 원주민은 이미 획득한 땅에 만족해야 했는데, <표 3>에서 보듯이 치아파스 원주민의 인구증가율은 멕시코 원주민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이미 80년대부터 만성적인 토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치아파스 원주민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 부족과 이로 인한 만성적인 빈곤이 신사파티스타 봉기의 가장 큰 경제적 원인이다.⁶⁾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신사파타스타는 1994년 1월 봉기하자마자 토지 점유에 나섰다. 1994년 1월부터 7월까지 신사파티스타는 오코싱고, 알타미라노, 라스 마르가리타스 지역에서 비원주민(라디노) 소유의 사유지를 무단 점거했는데, 그 면적은 약 6만 헥타르로 추정한다.(Villafuerte Solís et al. 1999, 131) 이에 대응하여 멕시코 정부는 신사파티스타에게 점유 토지 협상을 제의했다.

6)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관심과 1983년부터 이 지역에 들어와 조직 활동을 전개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도 신사파티스타 봉기의 주요 원인이다. 1983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윤경(2008, 91-94)을 참고하시오.

신사파티스타가 협상 제의를 거부하자 정부는 신사파티스타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원주민이나 적대적인 원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치아파스 원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정권의 신자유주의 토지 개혁, 즉 헌법 27조의 개정이 신사파티스타 봉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견해는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이런 단순화는 신사파티스타의 투쟁 전략과 외부인의 연대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신사파티스타는 무장 투쟁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멕시코 국내외의 지지 세력과 연대를 맺고자 반신자유주의를 강조했고, 외부인은 신사파티스타와 연대함으로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상징적 거점으로 삼았다. 1996년 신사파티스타가 치아파스주에서 개최한 ‘제1차 반신자유주의 국제회의(Encuentro Intercontinental por la Humanidad y contra el Neoliberalismo)’가 1997년 제2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반신자유주의 국제 연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반신자유주의 저항의 진원지이자 투쟁 거점이라는 신사파티스타의 위상을 굳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반 데르 하르의 지적처럼, 신사파티스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1997년 멕시코 정부가 제의한 점유 토지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고질적인 빈곤의 원인인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Van der Haar 2005). 아무튼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치아파스 원주민이 제기한 토지 문제는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며, 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IV. 대안근대성의 추구와 습속규범

신사파티스타가 1996년의 산 안드레스 협정 이후 변함없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원주민 자치(*autonomía*)이다. 1994년 봉기 당시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신사파티스타였다. 그러나 곧 멕시코

정부의 화해평화위원회(Comisión de Concordia y Pacificación: COCOPA)와 1년여에 걸친 협상을 벌여 정치, 행정, 사법, 문화 전반에 걸친 자율성을 협정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협정의 법제화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의 발칸화’였다. 원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언젠가는 멕시코 각지에서 원주민이 독립을 주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는 제도권의 보수 정파뿐만 아니라 진보 정파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 안드레스 협정의 법제화와 이행을 촉구한 2001년의 대행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의회는 산 안드레스 협정의 핵심 사항이 누락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신사파티스타는 2003년 8월 기존의 5개 자치 지역을 재정비하여 명칭을 아파스칼리엔테(Aguacaliente)에서 카라콜(Caracol)로 바꾸고,⁷⁾ 각 카라콜에 선정평의회(Junta de Buen Gobierno)를 구성함으로써 원주민 자치를 ‘사실상(de facto)’ 실현했다.

신사파티스타의 자치에 대한 비판이 없지는 않았지만⁸⁾ 신사파티스타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주의의 대안⁹⁾ 또는 대안근대성(modernidad alternativa)의¹⁰⁾ 모색이라고 평가한다. 근대성이나 대안근대성에 대한 정의나 관념은 논자의 이론적 입지나 관점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치에 관해서는 신사파티스타가 천명한 ‘복종하면서 명한다’는 원칙이나 정치사회관계의 수평성(horizontalidad)을 억압적 근대성에 대한 대

7) 카라콜의 조직한 상세한 논의는 김윤경(2013, 151-159)를 참고하십시오.

8) 멕시코의 좌파 지식인 로헤르 바르트라(Roger Bartra)가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Bartra 1998 참고).

9) 이를테면, 오르넬라스는 자본주의는 개인을 역할에 따라서 정치가, 사업가, 노동자, 관료, 지식인으로 전문화하는데 반해서, 신사파티스타의 자치는 정치, 사회, 경제 사이의 분리를 재생산하지 않으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중요한’ 것과 쓸데없는 것 사이의 분리도 재생산하지 않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의 세계 안에 여러 세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신사파티스타의 기획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명적 대안(alternativa civilizatoria al capitalismo)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Ornelas 2004, 81-82).

10) 살다냐 포르티요는 신사파티스타가 토착민운동(nativist movements)의 반(反)근대적 태도 및 제도혁명당의 기획인 근대성의 완성과 거리를 두는 한편, 혁명적 급진주의의 사회정의, 원주민 공동체의 합의제 관례, 자유주의의 대의민주제 가능성을 교직함으로써 대안근대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한다(Saldaña-Portillo 2003, 256-257).

안으로 여긴다. 신사파티스타의 자치가 외부인에게는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대안일 수 있는가를 따져보려면 신사파티스타의 언어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과 논의보다는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군사적, 정치적, 윤리적 이유로 신사파티스타의 자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¹¹⁾

따라서 여기서는 신사파티스타 봉기 이전의 치아파스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 연구 자료와 2003년 7월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신사파티스타 원주민 자치의 대강을 밝힌 「치아파스. 1/13 비석 Chiapas: la treceava estela」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멕시코의 원주민 공동체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근대적인 외부 세계에 부단히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이와는 상이한 습속규범(*usos y costumbres*)에¹²⁾ 따라 움직인다. 신사파티스타가 2003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주민 자치도 기본적으로는 습속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주민의 습속규범은 공동체와 분리불가능한데, 멕시코 오아하카 지방의 미헤(*mixe*) 원주민 출신의 인류학자 플로베르토 디아스 고메스는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한다.

11) 정이나는 신사파티스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신사파티스타를 공격하는 심리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나선 인류학자들은 수집한 로컬 자료, 정보, 개인적 분석까지도 경우에 따라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를 갖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정이나 2016, 155).

12) 카를센에 따르면, “습속규범이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믿음에 대한 비공식적인 규범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원주민 공동체에 통합된 집단적 규범 체계이다”(Carlsen 1999, 51). 이런 습속규범은 멕시코 내의 원주민 공동체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나 대강은 유사한 것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실정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관행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 인류학자들이 습속규범의 하나로 자주 드는 예는 울력(*tequio*)이다.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공동체의 도로가 유실되면, 행정관청에 복구를 요청하는 대신에 공동체 주민들이 하루 날을 잡아서 무보수로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것이다.

미헤 원주민은 “공동체를 걸으로는 물리적인 땅과 주민으로 정의한다. 해석하자면, 땅은 주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주민은 땅에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출발하여 우리 미헤 원주민은 두 요소의 상호 필요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원초적인 정의는 사람이 창조활동을 하고 자연을 변형시키는 공간이다. 노동을 통한 땅과 사람의 관계가 원초적인 관계인 것이다.(Díaz Gómez 2005, 367)

부연하면, 원주민 공동체는 땅이 있어야 하고, 공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조직과 더불어 공동체 내부의 각종 분류와 문제를 해결하는 고유한 사법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치아파스 원주민 공동체를 비롯하여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는 물론이고 아메리카대륙의 여타 원주민 공동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다. 이런 유사성은 정복, 식민지 지배, 독립이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또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농경생활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원주민 공동체에서 모든 사안은 총회에서 처리한다. 총회는 담당자가 필요시 소집하며, 총회에서는 공동체의 현안을 공지하고, 의논하고, 결정한다. 총회가 열리는 장소는 공동체의 공터이며,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성인 남자만 참석하여 안전에 대하여 발언한다. 총회 참석은 의무이며,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한다. 플로베리토 디아스 고메스에 따르면, 의사결정 방법은 총회 참석자의 합의(*consenso*)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수로 바뀌었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었다(Díaz Gómez 2005, 369).

신사파티스타 자치의 대원칙인 ‘복종하면서 명한다(Mandar obedeciendo)’¹³⁾ 다름이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전래의 의사결정, 즉 합의에 따라 각종 사안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하명상달식 직접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합의 도출 방식에 대한 「치아파스. 1/13 비석」에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첫째는 신사파티스타가 전통적

13) 이 말을 2013년 오벤틱(Oventic) 지역의 선정평의회 입감판에 적힌 구절로 풀어서 얘기하면 “민중이 명하고, 정부는 복종한다”(El pueblo manda y el gobierno obedece)는 것이다.

인 방식의 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디아스 고메스가 언급한 거수와 다수결 방식을 도입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 하나는 신사파티스타의 자치 편제는 기초 단위인 공동체, 이보다 상위 단위인 무니시피오(municipio), 그리고 최상의 단위의 카라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편제를 고려할 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공동체마다 합의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이를 상위 단위인 무니시피오와 카라콜에서 어떻게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복종하면서 명한다’는 원칙은 공동체가 하나일 경우는 별다른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지만 여러 공동체를 하나의 편제를 묶는 순간부터 비록 맹아적 형태일지라도 대의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또 신사파티스타의 직접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의사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4년 3월 22일 신사파티스타측의 마르코스와 멕시코 정부측의 ‘치아파스 화해 평화(Paz y la Reconciliación en Chiapas)’ 위원 마누엘 카마초 솔리스 사이의 예비 협상이다. 양측은 1994년 3월 22일 협상 의제에 관한 합의에도 달했는데, 마르코스는 합의안을 신사파티스타 원주민 공동체에 회부하여 수용 여부를 물었다. 초조하게 회신을 기다리던 마르코스는 그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1994년 6월 12일 신사파티스타에 참여한 원주민 공동체가 합의문 수용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체가 소규모이고 단 하나뿐일 때는 원활하게 작동하던 직접민주주의가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개가 되자 과부하에 걸린 것이다.

원주민 공동체의 직접민주주의는 습속규범의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 습속규범에 따르면, 여성은 원주민 공동체의 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사파티스타는 1993년 여성혁명법을 제정했는데, 주로 혁명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어서 원주민 공동체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보장하지는 못했기에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한 신사파티스타는 1996년 다시 여성혁명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공동체 총회 참석권과 발언권 등을 보장했다.¹⁴⁾ 원주민 공동체의 습속규범에 비춰보면 문자 그

대로 혁명적인 법이다.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습속규범이 여성의 역할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경희의 지적처럼 ‘형식적인 입법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강경희 2014, 237). 성평등은 억압적 근대성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고, 대안근대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신사파티스타 자치의 근간인 원주민 공동체의 습속규범에서는 그러한 저항의 지점을 찾을 수 없다.

습속규범과 신사파티스타의 자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할 사항은 원주민 공동체 전래의 담당제(sistema de cargo)이다. 담당제라는 말은 인류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고, 멕시코 원주민은 하나 같이 ‘공동체에 대한 책무’(obligación para con la comunidad)라고 부른다(Korsbaek 2009, 113). 아무튼 멕시코에는 여러 지역에 수많은 원주민 종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편차가 없지는 않으나 인류학자 코르스바에크에 따르면, 전형적인 담당제는 다음과 같다.

담당제는 담당자 몇 사람으로 구성되며, 각 담당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담당자는 공동체 구성원이 윤번제로 맡으며, 단기간 담당자로 일하고 난 뒤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담당자는 근무 기간에 어떤 보수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상당한 자기 시간을 투여하고, 상당한 현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희생의 대가로 담당자는 공동체에서 상당한 위신을 얻는다. 담당자의 업무는 위계적으로 나뉘져 있으며, 담당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담당제의 업무는 종교업무와 정치업무로 나뉘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담당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물려난 사람은 전임자(pasado) 또는 유지(principal)로 대접받는다. (Korsbaek 1996, 82)

이런 담당제의 가장 큰 특징은 윤번제이다. 원주민 총회에서 담당자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선거로 선출하지는 않는다. 합의에 따라서 윤번제로 맡는다. 근무 기간은 치아파스주 로스 알토스(Los Altos) 지역의 시나칸탄(Zinacantán)에서 보듯이 보통 1년이다. 과테말라와 같은 다른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14) 1993년 여성혁명법의 10개 조항과 1996년 여성혁명법의 31개 조항은 강경희(2014, 224-227)을 참고하시오.

는 2-3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Korsbaek 1996, 72-73). 이렇게 윤번제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전임자가 되는데, 앞서 언급한 시나칸탄의 경우에는 50세에서 54세 그룹의 남자 85%가 담당자를 역임했다(Korsbaek 1996, 76).

담당제의 또 다른 특징은 무보수라는 데 있다. 치아파스주의 시나칸탄, 산 후안 차물라(San Juan Chamula), 산 안드레스에서 담당자는 업무 수행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자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 후안 차물라에서는 담당자가 1959년에 3천 페소, 1960년에는 8천페소를 자비로 사용했다고 하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Korsbaek 1996, 77-78). 이렇듯 담당자로 일한다는 것은 시간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손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르코스는 담당자(carguero)라는 어휘 대신에 당국자(autoridad)라는 어휘를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담당제를 자치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공동체에서 당국자의 업무는 무보수이며(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동체가 생계를 도와준다)인데, 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 윤번제이기 때문이다.(Marcos 2003)

이어 공동체 총회의 불참 횟수가 많은 구성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르코스는 윤번제라고 하는데 임기는 몇 년인지, 구체적인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상세한 설명의 부재 이유를 마르코스는 이렇게 밝힌다.

이런 자치의 ‘형태’(여기서 나는 극도로 축약했다)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의 기여나 창안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것이며,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탄생하던 순간에 각 공동체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Marcos 2003)

다시 말해서, 신사파티스타 자치는 치아파스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하던 자치를 계승한 것이므로 굳이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담당제에는 직위의 고하가 있다. 높은 직위의 담당자가 되려면 그 전에 낮은 직위의 담당자로 일해야 한다. 고메스 페랄타에 따르면, 치아파스 주 원주민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직위의 담당자는 심부름꾼(*alguacil* 또는 *topil*)이라고 부른다. 주로 젊은이가 맡으며, 소식을 전달하고, 치안을 담당하며, 공동체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한다. 심부름꾼보다 상위 직위는 집사(*mayordomo*)로, 공동체의 축제를 책임진다. 집사 위에는 고문(*regidor*)이 있다. 고문은 공동체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울력(*tequio*)을 감독한다. 담당제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이장(*alcalde*)으로, 대외적으로 공동체를 대표하여 다른 공동체 및 공식적인 행정기관과 교섭한다(Gómez Peralta 2005, 134). 이장이 되면 공동체에서 그만큼 위신이 높아지며, 유지로 대접 받는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듯이, 원주민 공동체에서 높은 직위의 담당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직위의 담당자로만 일한다. 오로지 부유한 사람만이 높은 지위의 담당자로 일하면서 위신을 얻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담당제는 원주민 공동체 내에 구축된 위계질서의 표현으로, 신사파티스타가 주장한 수평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신사파티스타는 보완책으로 전래의 담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민소환제, 당국자 부패에 대한 감사를 도입했다.

신사파티스타의 자치가 습속규범을 따른다고 했을 때, 로헤르 바르트라(Roger Bartra) 등이 비판한 지점도 바로 담당제의 위계질서였다. 비케이라에 따르면, 담당제는 역사적 구성물로서, 아메리카 정복 당시 스페인 당국은 원주민을 쉽게 통제하고, 선교가 용이하며, 공물 징수가 편리하도록 산골로 이주시켜 재조직했으며, 이에 따라 “원주민도 낯선 환경과 필요에 부응하여 자치, 위계질서, 연대, 상호부조, 정체성을 새로 구성했다”(Viqueira 2000, 21). 식민지 시대 도시에 거주하던 지배세력은 원주민 공동체의 유지한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원주민 공동체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Bartra 1998) 담당제의 위계질서는 식민지 지배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해서, 담당제는 정복

이전부터 전해오는 원주민 전통의 습속규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평하게 말하면, 담당제가 식민지 지배 질서의 반영인지 아니면 정복 이전부터 내려오는 원주민 공동체의 고유한 속성인지는 알 수 없다.¹⁵⁾ 그렇지만 원주민 공동체의 습속규범인 담당제의 모태(matriz)는, 안드레스 메디나의 통찰처럼 농경사회이다(Medina 1995, 10). 담당제에는 정치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데,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주기적으로 축제를 여는 농경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담당제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유사성을 띄고, 세계관은 정복 이전의 원주민 공동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적, 통시적 유사성도 원주민 공동체의 농경이라는 생산양식의 공시적, 통시적 동일성에 기인한다.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이 담당제를 비롯한 전래의 습속규범의 근거한 자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습속규범이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생활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사파티스타가 주장하는 자치에서 자본주의의 문명적 대안을 찾는 일은 이미 지나간 농경사회에서 대안을 찾는 일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V. 결론

다른 세상을 꿈꾸기조차 어렵던 시절, 멕시코의 변방에서 불쑥 등장한 신사파티스타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참신하고 매력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상상력을 일깨우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도록 추동했다. 어떤 사람은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언변과 문학적 재능으로 사람들을 홀렸다고 폄훼하지만, 사실은 멕시코의 인류학자가 아니면 알 수 없던 치아파스 원주민 공동체 특유의 세계가 마치 주술처럼 현대인을 사로잡은 것이다. 신사파티스타에 매

15) 담당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때는 20세기 중반이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담당제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담당제가 정복 이전의 원주민 공동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사적 구성물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Carlsen 1999, 48).

료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의 확고한 우파와 냉철한 좌파뿐이었다.

찬사와 지지의 언어 세계는 신사파타스타 투쟁의 든든한 지원군인 동시에 비합리적인 신화의 온상이기도 했다. 이 신화는 외부인의 열광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경제적 빈곤, 사회적 경멸, 정치적 경시에 맞서 봉기한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을 무대 뒷전으로 몰려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전쟁이라는 담론은 신사파티스타의 투쟁을 서구중심주의의 관점으로 전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치아파스 현실의 맥락은 사상되고, 본필 바타야(Bonfil Batalla)가 말한 ‘심오한 멕시코(México profundo)’, 즉 원주민 세계는 가상의 멕시코로 변했다. 이는 정보통신 시대에 원주민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다.

신사파티스타를 언급할 때마다 으레 따라 붙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샤투어구(cliché) 또한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신화였다. 신자유주의의 세계는 상품생산의 세계이고, 금융서비스의 세계이다. 신사파티스타 원주민도 상품과 금융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토지에 비한다면 부차적이고, 추상적이다. 게다가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이 제기한 토지와 빈곤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곱삭과 있던 해묵은 문제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퇴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신사파티스타의 자치에 대한 외부인의 낭만적, 추상적 이해와 옹호에도 불구하고 자치가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미시 권력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판이 없으면 습속규범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전근대적 권위주의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또 직접 민주주의, 공동체의 합의라는 집단적 의사결정, 수평성이라는 언어에 매혹되어 이를 자본주의의 대안, 대안적근대성, 전자본주의적 대안으로 오독하고, 결과적으로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에게 자치란, 어제의 삶보다 개선된 오늘의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망각하게 된다.

이제는 “물으면서 길을 가고 있다(Caminar preguntando)”라는 신사파티스타 원주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때다. 이 길은 오랜 세월 묵혀둔 길

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라칸돈밀림에서는 헤쳐 나가기 쉽지 않은 길이다.

참고문헌

- 강경희(2014), 「멕시코의 민중적 페미니즘과 사파티스타(EZLN) 여성혁명법」, 평화학연구, Vol. 15, No. 1, pp. 221-240.
- 김윤경(2008),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운동 -새로운 세계를 향한 원주민 운동」, 서양사론, Vol. 97, pp. 85-115.
- 김윤경(2013), 「멕시코 원주민의 자치(autonomía)를 위한 운동: 사빠띠스마운동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4, No. 1, pp. 133-171.
- 이내영(1998), 「페소화위기의 원인과 멕시코의 대응, 그리고 이후」, 아태연구, Vol. 5, pp. 83-118.
- 임상래(1996), 「멕시코의 토지개혁 정책과 에히도제도」,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9, pp. 147-170.
- 정이나(2016), 「사파티스타 운동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소고」,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9, No. 2, pp. 135-162.
- Aufheben(2000), “A commune in Chiapas? Mexico and the Zapatista rebellion, 1994-2000”, <https://libcom.org/library/commune-chiapas-zapatista-mexico>.
- Bartra, Roger(1998), “Sangre y tinta del kitsch tropical”, Fractal, 8, <http://www.mxfractal.org/F8bartra.html>
- Benitez-Manaut, Raul(1994), “México. El desafío de las guerrillas”, *Nueva Sociedad*, Vol. 130, pp. 24-31.
- Bonfil Batalla, Guillermo(1987), *México profundo: una civilización negada*, México: Grijalbo.
- Bradner, Scott(1994), “Underwhelmed by the Internet-sofar”, *Network World*, Vol. 11, No. 6, p. 17.
- Carlsen, Laura(1999), “Autonomia indígena y usos y costumbres la innovacion de la tradicion”, *Chiapas*, Vol. 7, pp. 45-70.
- Cleaver, Harry(1995), “The Zapatistas and the Electronic Fabric of Struggle”, <https://la.utexas.edu/users/hcleaver/zaps.html>.

- Díaz Gómez, Floriberto(2005), “Comunidad y Comunalidad”, *Antología sobre Culturas Populares e Indígenas II. Lecturas del Seminario Diálogos en la Acción. Segunda Etapa*, México: CONACULTA(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pp. 365-372.
- Fuentes, Carlos(1994a), “Chiapas, donde hasta las piedras gritan”, *El País*, 9 de enero.
- Fuentes, Carlos(1994b), “Las dos democracias son una sola”, *El País*, 22 de febrero.
- Galindo, Mario e Inés Muñoz(1994), “Entrevista al subcomandante Marcos”. <https://www.bibliotecas.tv/chiapas/ene94/01ene94a.html>.
- Gómez Peralta, Héctor(2005), “Los usos y costumbres 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 los Altos de Chiapas como una estructura conservadora”, *Estudios Políticos*, Vol. 8, No. 5, pp. 121-144.
- INEGI(1993), *Chiapas. Hablantes de Lengua Indígena Perfil Sociodemográfico*, México: INEGI.
- Korsbaek, Leif(1996), *Introducción al sistema de cargos: antología*,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del Estado de México.
- Korsbaek, Leif(2009), “El comunalismo: cambio de paradigma en la antropología mexicana a raíz de la globalización”, *Argumentos*, Vol. 22, No. 59, pp. 101-123.
- Marcos(2003), “Chiapas: la treceava estela”, <http://enlacezapatista.ezln.org.mx/category/2003/>.
- María Josefina Saldaña-Portillo(2003), *The Revolutionary Imagination in the Americas and the Age of Developmen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Medina, Andrés(1995), “Los sistemas de cargos en la Cuenca de México: una primera aproximación a su trasfondo histórico”, *Alteridades*, Vol. 5, No. 9, pp. 7-23.
- Muñoz Ramírez, Gloria(2003), *EZLN: 20 y 10, el fuego y la palabra*, México D. F.: La Jornada Ediciones.
- Ornelas, Raúl(2004), “La autonomía como eje de la resistencia zapatista. Del levantamiento armado al nacimiento de los Caracoles”, *Hegemonías y emancipaciones en el siglo XXI*, Buenos Aires: CLACSO(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pp. 71-95.

- Paz, Octavio(1994), “El nudo de Chiapas”, *La Jornada*, 7 de enero.
- Santiago, Enrique(2014), “El sistema telemático en México 1970-2011”, Gustavo Garza(coord.), *Valor de los medios de producción socializados en la Ciudad de Méxic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277-319.
- Schulz, Markus S.(2014), “Nuevos medios de comunicación y movilización transnacional: el caso del Movimiento Zapatista”, *Perfiles latinoamericanos*, Vol. 22, No. 44, pp. 171-194.
- Van der Haar, Gemma(2005), “El movimiento zapatista de Chiapas: dimensiones de su lucha”, Labour Again Publications, <http://www.iisg.nl/labouragain/documents/vanderhaar.pdf>.
- Villafuerte Solís, Daniel. et al.(1999), *La tierra en Chiapas. Viejos problemas nuevos*,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iqueira, Juan Pedro(2000), “Los peligros del Chiapas imaginario(versión ampliada y corregida)”, *Anuario 1999, Centro de Estudios Superiores de México y Centroamérica*, pp. 9-81.

박 병 규

서울대학교
lapia@snu.ac.kr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6일

Rethinking discourses on the Neozapatistas

Byong Kyu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Byong Kyu(2018), "Rethinking discourses on the Neozapatista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2), 29-54.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ree discourses on the Neozapatistas struggle from the Neozapatista indigenous perspective: cyberwar, anti-neoliberalism and indigenous autonomy. First, the term 'cyberwar' contributed to attracting the global attention and to raising the enormous virtual support, which at the same time produced an adverse effect of misconceiving the real Neozapatistas struggle as a struggle in cyberspace. Second, the Neozapatistas banded together with anti-neoliberal movements to successfully establish international networks of support. It was considered a symbol of the anti-neoliberal resistance, but failed to deal with the land ownership issue that was the long-cherished task of the Neozapatista indigenous. Finally, the Neozapatista autonomy, which was based on the indigenous "customs and traditions(usos y costumbres)", in practice did not suggest an alternative modernity to the current system.

Key words Neozapatista, EZLN, Cyberwar, Anti-neoliberalism, Autonomy, Customs and traditions